

“충남지역 소외지역 주민대상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가칭) 개설에 대한 연구

1. 연구개요

인문학 열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충남지역에선 아직 미풍에 불과하며, 특히 소도시의 경우, 인문학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인문학은 나날이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고취는 물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소중함을 일깨움으로써 시민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소도시에서의 시민인문학 강좌 개설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강좌개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교협 공주대 지부는 충남지역 소도시 등 소외된 지역의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의 타당성을 타진하는 한편, 초창기 다양한 시민인문학의 경험을 가진 작가 최준영(노숙인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인문학 강의경험을 가졌으며, 일명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이 있음)와 연계하여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다음과 같은 강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연구모임 구성 배경 및 목적

(1) 구성 배경

소외 계층의 눈높이에 맞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그동안의 인문학 강좌는 의미가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나,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문학 강좌에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주로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은 대도시의 대강당에서 개최되고 있어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자활과 자립의 의지가 필요한 계층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연구모임의 목적

기업체, 주부, 공직자, 국군장병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간도서 벽지의 노인들과 청소년들은 대도시의 대강당 위주로 개최되는 인문학 강

좌에서 소외되어 공중과 TV 시청을 통해서만 인문학 강의를 접하고 있다. 인문학 강의에 소외된 지역을 인문학 강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3. 연구모임 운영 과정

(1) 연구모임 운영 개요

현재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최준영 작가, 공주대학교 민교협 교수님들을 초대하여 4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최준영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노숙인들의 재활을 도왔던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모임의 성과를 풍성하게 하였다.

최준영 작가와 강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을 초대하여 연구모임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칭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최준영 작가의 약력은 아래 참고사항을 활용

(2) 연구모임의 주요 내용과 성과

가. 강의 구성

인문학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철학/문학/생활경제 등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 진행 뒤에는 후기를 작성토록 하여 발전적 진행을 도모한다.

나. 강사진 구성

민교협 원로회원과 거리인문학 최준영 작가를 주축으로 시민인문학 강좌진을 구성하여, 순회방문 강의를 진행한다.

다. 강의 대상

충남지역의 소외된 지역 시민들, 특히 노년층과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 등 교육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라. 강의 장소

각 시군의 시민회관/ 문화예술 회관/ 각급 관공서 강당/ 마을 주민센터 등 기존 시설들을 활용한다.

<표> 연구모임 내용 및 결과

1회차(여는 강의)	개요 : 시민인문학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한 안내 및 시민인문학의 경험 공유.	강사: 최준영(거리의 인문학자)
2회차(철학)	개요 : 나는 누구인가, 공동체는 무엇인가, 더 붙어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	강사: 김정현(민교협 고문, 공주대 미술교육학과 명예교수)
3회차(역사)	개요 :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현실에 대한 자가진단을 유도.	강사: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4회차(문학)	개요 : 문학 속의 현실, 현실 속의 문학. 예) 시 창작, 자서전 쓰기 등등.	강사: 조동길(민교협 고문, 공주대 국어교육학과 명예교수)

4. 연구모임 성과의 활용방안

(1) 연구모임 활동의 기대효과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점검하여 충남지역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 강의는 일종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 주요 지역의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다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모임 활동의 성과 활용방안

충남지역의 주요 지자체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연구모임 결과를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가 확산될 것이다.

충남지역의 소외지역 및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자체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참고)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프로필

2000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시나리오 부문) 당선

2002년 (재)경기문화재단 출판팀장 및 편집주간

2005~2008. 성프란시스대학(최초의 노숙인 인문학 강좌) 문학 및 글쓰기 담당 교수

2006년 관악인문대학(지역 자활지원센터에서 개설한 저소득시민강좌) 문학 담당 교수

2008~2010. 경희대학교 실천인문학센터(교도소, 노숙인쉼터 등에 강좌개설) 운영위원 겸 교수

2010~2013. 경기도 군포시청 홍보기획팀장.

2013년부터~ 현재. 프리랜서 인문학 강사로 활동.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출강.

주요 강의경험

- 성프란시스대학, 관악인문대학,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 소속으로 노숙인/교도소 수형인/ 자활참여자/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 해양대학교, 카이스트, 동국대학교 등의 최고위과정 및 일반대학원 출강.
- 수원시청, 서울 관악구, 금천구, 울산광역시, 대구시 등 지자체 인재개발원 및 도서관에서 연중 강의.
- 삼성그룹 신입사원 연수, 삼성전자 연구원 대상 글쓰기 강의